

은행(금융지주)

『바젤 III 최종안』 일부 조기 시행: 은행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 위해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바젤 III 최종안』 일부 조기 시행 방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월 30일,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가 개선(신용리스크 산출방법 등)되는 「바젤 III 최종안」을 당초 일정(2022년 1월 1일)보다 1년반 이상 앞당겨 2Q20(2020년 6월말 BIS비율 산출시)부터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에 조기 도입되는 내용은 「바젤 III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이다. 국내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 시스템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바젤 III 최종안」 중 운영리스크 규제 개편안은 금융회사들이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위험가중자산은 해당 은행의 신용·운영·시장리스크를 합산한 값이므로, 신용리스크가 감소하면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높아지게 됨. 신용리스크: 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 등에 따른 신용리스크가 통상 은행 위험가중자산의 80~90%를 차지

기대 효과: 기업대출 비중 높은 은행 중심으로 BIS비율 ↑

「바젤 III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 방안을 시행하면,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비율이 크게 상승(보통주자본비율, 그룹 기준 약 1%p 이상, 은행 기준 약 2~3%p 이상 ↑)하는 등, 기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자본여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대내적으로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및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서 은행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대외적 기대 효과로는, 국내 은행규제를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은행권의 BIS비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은행권의 해외자금 조달 및 해외진출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다.

당분간 높은 주가 변동 지속 가능하나, 길게 본다면 저가·분할 매수 기회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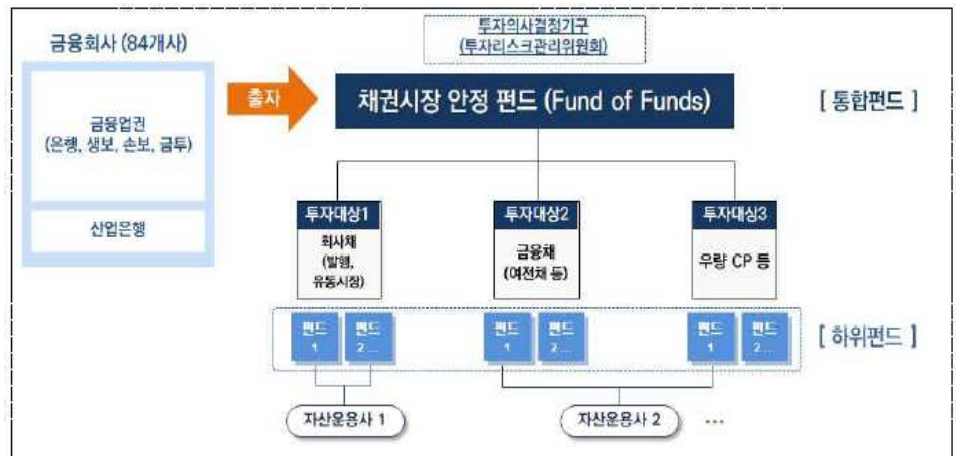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동성 경색 및 신용위험 상승 우려가 높아지며 은행(금융업종) 주가가 하락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와 그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다만, 통화·재정정책,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 정부의 다각도 대책과 커버리지 은행(금융지주)의 개선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과거 금융위기 시 밸류에이션 이하까지 하락한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불확실성이 높아, 당분간 높은 주가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으나, 중장기 관점에서는 좋은 저가 매수 및 분할 매수 기회로 보인다. 커버리지 은행(금융지주사)의 2020년 배당 수익률은 6~9%로 예상된다.

정부는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등을 위해 금융권의 참여를 기반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증안펀드 조성 과 관련해 정책적 지원(펀드 출자금액에 대한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 비율을 완화하고 투자손실위험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바젤 III 최종안」 조기 도입 외에도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금융지주사)이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경제 및 유동성 위기 국면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필요한 역할이며, 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이 수반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은행(금융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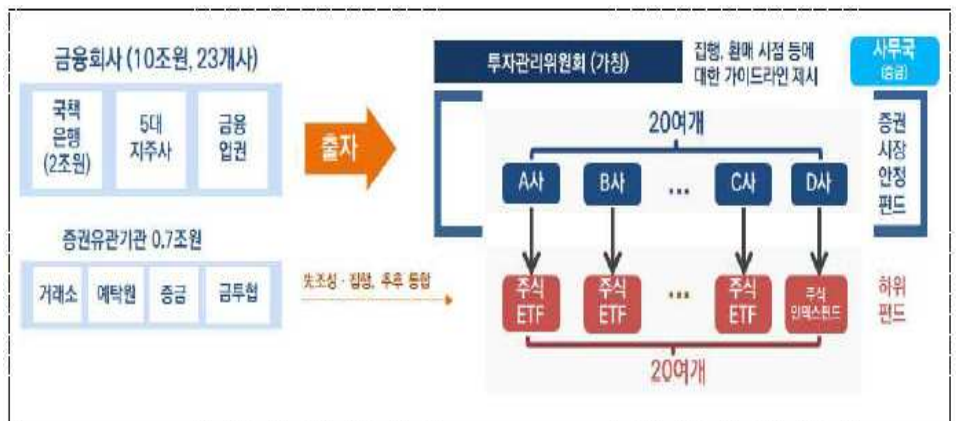
『바젤Ⅲ 최종안』 일부 조기 시행: 은행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 위해 건전성 규제 유연화

그림 1. 채권시장안정펀드



자료: 정부(관계기관 합동),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그림 2. 증권시장안정펀드



자료: 정부(관계기관 합동),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은행(금융지주)

『바젤Ⅲ 최종안』 일부 조기 시행: 은행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 위해 건전성 규제 유연화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